

글로벌시대를 맞이한 한일대학간의 교류

-신라대학교 일본교류를 중심으로-

최 광 준*

(e-mail : kjchoi@silla.ac.kr)

目 次

- 1.서
 2. 신라대학교와 일본대학간의 교류.
 - 3.신라대학교 대학정보in 국제교류 국제교류프로그램
 4. 신라대학교의 일본어 교육.
 - 5.신라대학교의 일본 현장실습.
 - 6.신라대학교의 일본어 특강
 - 7.결
-

1.서

21세기를 맞이하여 각국의 대학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세계에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급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 혼란스럽기도 하다.

한국의 대학뿐 아니라 일본의 대학들도 1990년대까지는 예전의 학생들이 찾

1) 신라대학교

아오는 대로 대학이 운영되어 왔으나 90년대 후반부터 수험생의 감소와 변해가는 세계정세에 맞게끔 대학도 움직이고 있다. 대학 생존을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의 대학도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다. 수험생의 감소에 따른 정원의 미달이라는 사태는 학교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우선 일본의 경우는 단기대학인 2년제 대학들이 무너지고 있으며 곧 이어 4년제 대학도 존폐위기에 있다는 위기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돌파구의 하나로서 외국유학생의 유치, 외국대학과의 교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 시작했다. 2013년경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입학정원이 같아지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학들도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들은 각각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대학이 상아탑이고 진리의 전당이고 학문의.....이고 하는 말들은 수험생의 감소라는 사실에 직면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대학의 ...이 바뀌게 되었다. 특히 사립대학에서의 생존은 학교의 존폐로 가기 때문에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학교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대학의 일본과의 교류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등을 폭넓은 시각에서 살펴보려한다.

2. 신라대학교와 일본대학간의 교류.

신라대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하여 비교적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도 1989년 필자가 신라대학의 전신인 부산여자대학에 부임했을 때는 한곳도 없었다. 국제교류라는 개념도 없었고 아직 다른 나라 대학들과의 교류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 할 때였다. 그래서 필자가 일본 유학 때 알고 있던 대학인 동경 케이센(惠泉)여자대학의 교수들과 협의하여 양교의 일어일문과 교류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신라대학교의 일본교류의 시작이다. 현재 신라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본대학과의 교류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케이센(惠泉)여자대학교의 교류

케이센(惠泉)여자대학은 필자가 동경 유학시 유학생으로서 학교 여름캠프에 네 번 참가하여 일본학생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한 경험이 있는 대학이다. 그때 일본의 교수들과 필자가 한국의 대학에 부임하게 되면 양교의 교류를 활성화 해 보자는 약속을 한 대학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1990년부터 일어문과 3학년 학생의 여름방학 연수가 시작 되었다. 부산여자대학이 먼저 7월말에 케이센(惠泉)여자대학을 방문하여 7박8일의 일정으로 학생세미나에 참석하고 케이센(惠泉)여자대학의 여름캠프에 같이 참석하는 일정이다. 또한 홈스테이를 통한 0 일반가정과의 교류도 겸하였다. 아울러 8월 달에는 일본 측 이 부산여대를 방문하여 같은 내용인 학생세미나, 홈스테이, 그리고 한국 문화 탐방 등을 통하여 양국을 이해하여 같다. 이 행사는 매년 실시하게 되었고 참가하는 학생이 매년 증가하여 인터뷰에 의한 선발에 의하여 참가하게 되었다. 양국교수들의 반응도 좋았고 학생들 간의 교류도 매우 활성화 되었다. 일부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우리학생들을 돌보게 되었고 양국의 가정끼리의 교류로 발전한 학생들도 있었다. 90년대 초반, 아직 한국이 일본인에게 그리 인정받지 못한 시대에 이러한 문화적 이해와 교류는 매우 의미가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양교가 같은 여자대학이라는 면에서도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5년 6월 24일 정식으로 양교의 교류협정이 이루어졌다. 양교의 교환학생은 매년 2명씩으로 하고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양교의 이견이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5년 연장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교류협정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교환학생의 조건은 본교에서 파견되는 학생들이 수업료 면제에 장학금을 매달 8만 엔 정도 받고 있다. 이중 4만 엔 정도는 숙소비로 지불하고 있다. 숙소는 케이센(惠泉)여자대학에서 미리 장기임대를 해 놓아서 한 달 한 달 지불하면 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케이센(惠泉)여자대학 측의 교환유학생은 본교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며 역시 수업료면제이다. 장학금은 매년은 아니지만 2년에 한번정도 국제교류협회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숙사비용과 함께 식대도 본교에서 지불하고 있다. (<http://www.keisen.ac.jp>)

또한 4개월간의 어학연수 프로그램도 실시되고 있다. 매학기 4명씩 본교에서만 파견하는 행사로 4개월간 케이센(惠泉)여자대학에서 일본어에 관련 있는 강좌만 듣게 하는 연수프로그램이다. 학점은 한 학기 학점 전부를 인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다.

2) 도쿄가쿠게이 (東京学芸大学) 대학

1995년 6월 26일 정식교류가 이루어 졌다. 동경가쿠게이 (東京学芸大学) 대학은 교육대학으로서 일본에서도 인정받는 교육대학이다. 동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대학이란 점에서 본교의 일어교육과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인 규모는 본교가 크지만 내실적인 면으로서는 도쿄가쿠게이 (東京学芸大学) 대학이 본교보다 더 내실이 있는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학이다. 또한 국립대학으로서 일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학문적 상황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더불어 국비유학생의 장학금 지급이 다른 교류대학보다 많은 편이며 대학원생의 교류도 가능한 대학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대학이다. 대학원생의 교류에 있어서는 국비장학생으로 한 달에 18만 엔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대학원 교류학생으로 파견된 학생이 그대로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도쿄가쿠게이 (東京学芸大学) 대학의 파견대학원생이 본교 대학원에 파견되어 수업을 마친 후 신라대학교의 외국인 교원으로서 임용되어 본교에서 일본어 교육에 임한 교환 유학생도 있다. 학부생도 다른 대학과는 다르게 본교에서는 5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도쿄가쿠게이 (東京学芸大学) 대학의 기숙사에 전원 입사하는 조건을 지키고 있다. 물론 기숙사비는 본인 부담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도쿄가쿠게이 (東京学芸大学) 대학에서 본교로 의 교환유학생으로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다는 점이다. 한국으로 교환을 희망하는 도쿄가쿠게이 (東京学芸大学) 대학의 학생은 거의 대부분이 서울 쪽을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양교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교환의 균형을 맞추려고 본교에서 도쿄가쿠게이 (東京学芸大学) 대학에 3,4년에 한번 씩 인솔교수와 학생들을 20여명 여름방학에 초청하여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다. 본교에서 파견하는 학생은 일본어의 중급수준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라 수업을 받는 데는 별 지장은 없으나 일본어 실력이 모자라는 학생은 일본어 교육 수업이 개설되어 있어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좋은 조건의 대학이다. 도쿄가쿠게이 (東京学芸大学) 대학에서 파견되는 학생들의 경우는 한국어의 수준이 매우 약하지만 본교는 한국어 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르는 학생들도 한학기가 지나면 다음 학기에는 전공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한국어 수준이 된다. 처음에 교류협정을 맺을 때에는 매우 적극적인 교수들이 양교에 있어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으나 적극적이었던 교수들과 직원들이 정년이나 인사교류에 의해 바뀌는 등 국립으로서의 단점도 보여 교류의 기복이 심한 것이 문제점이라 하겠다. (<http://www.u-gakugei.ac.jp>)

3) 시가쿠칸대학(志学館大学)

시가쿠칸대학(志学館大学)은 처음에는 가고시마 여자대학이었다. 1998년 3월 12일에 협정을 맺었으며 큐슈지방 이라는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대학이라 생각하여 교류를 시작하였다. 일본어 교육의 학과도 설치되어 있었고 여자대학이라는 점도 본교와 같았다는 점으로 필자가 교류처장으로 근무 할 때 협정되었다. 가고시마 시내와는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규모는 작았지만 내실이 있는 학교라 생각이 되었다. 교환학생은 역시 양교 2명씩이며 수업료 면제에 본교에서 파견되는 학생들은 일본정부의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다. 이에 시가쿠칸대학(志学館大学)에서 오는 학생들의 기숙사비용과 식대는 본교가 부담하고 있다. 도쿄와 떨어져 있어서인지 대도시가 아니어서 인지 파견되는 본교생이 매우 환대를 받고 있으며 파견되어 오는 학생들도 매우 소박하고 순수한 학생들이 많다. 협정을 맺은 이래 양교에서 계속 2명씩 교류를 하고 있는 대학중의 하나이다. 협정내용은 위의 대학들과 비슷하다. 학술교류를 비롯하여 학생교류, 그리고 공동연구 등으로 되어있다. (<http://www.shigakukan.ac.jp>)

4) 오사카메이세이대학(大阪明浄大学)

오사카에 위치한 대학으로 관광경영에 관한 학부가 있는 대학이다. 본교에서는 관광경영과, 호텔경영과, 국제관계학과 학생들이 파견되고 있다. 2001년 3월 7일에 교류협정이 체결 되었다. 다른 교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매년 두 명의 학생들을 서로 파견하고 있다. 오사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교토, 나라, 아스카를 비롯하여 일본의 관광, 유적지를 중심으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파견되어 생활하고 있다. 수업료 및 생활비등도 다른 대학 파견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실시하고 있다.(<http://www.meijo.ac.jp>)

5) 교토 고게이센이대학(京都工芸纖維大学)

교토에 위치한 대학으로 국립대학이다. 예술대학으로서 일본에서도 우수한 명문대학이다. 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한 대학으로서 본교 졸업생이 교토 고게이센이대학(京都工芸纖維大学)을 졸업하고 본교에 부임해서 교류협정을 맺게 되었다. 예술계열이 전통이 있는 본교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 이었다. 우선 교수들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약 5년 전부터는 학생들의 교류도 시작되어 매년 두 명씩 1년간 파견하고 있다. 정식적인 협정은 2002년 6월 6일 이루어졌다. 학술교류에 관한사항, 공동연구 등 다른 대학과의 교류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술계통의 학생교류가 중심이나 문제점으로서 일본어를 잘 하는 학생이 매우 드물어 파견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있다. (<http://www.kit.ac.jp>)

6)도카이대학 (東海大学)

일본의 대학중 규모가 매우 큰 대학으로 2002년 11월 1일에 교류가 시작되었다. 학생교류, 학술교류 등 다른 대학과 큰 차이 없는 내용으로 교류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생교류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도카이대학 사정으로 호혜원칙에 따라 도카이 대학에서 본교로의 교환유학생 파견희망 학생이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는 부칙규정에 의거하여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대학이 크고 작고에 따라 많은 제약이 있고, 각 대학의 교류협정 패턴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특성상 경영과 상호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실시하지 않는 대학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한국 측 사고로서 접근하면 실패 할 수있다는 예가 되고 있다. 담당하는 직원이나 교수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http://www.tokai.ac.jp>)

7)릿쇼대학(立正大学)

사회복지학부의 특성화를 위하여 교류가 시작되었다. 릿쇼대학(立正大学)의 사회복지학과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2004년 7월27일 협정이 체결되었다. 학생들 간의 방학동안을 이용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교 교수들 간의 세미나를 중심으로 교류가 진행 되고 있다. 동경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http://www.ris.ac.jp>)

8)니혼대학(문리학부, 日本大学)

니혼대학은 대학 특성상 학부별로 캠퍼스가 다르며 독립채산제이다. 일본대학 문리학부는 100년이 넘는 일본대학 역사 중 교양학부를 독립시켜 만든 역사가 깊은 학부이다. 문리학부에 학생 수는 9,000여명으로 우리대학의 규모에 버금가는 학부이다. 국문학과, 역사학과, 지리학과 등 본교의 인문학부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들이 거의 설치되어있다. 2006년 3월 28일 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필자가 교류처장을 역임할 때 체결되었다. 매년 교환유학생은 2명씩 파견하기로 했으며 여름과 겨울방학에 본교에서 어학연수단을 파견하고 있다. 교환학생 2명의 조건은 같은 조건이며 본교에서 간 학생들에게도 숙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좋은 조건으로 유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유학생활에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이 숙사를 해결하는 것인데 본교 파견의 학생들은 거의 상대방교에서 준비를 해 주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 단기문화 연수인 일본어 연수는 방학을 이용하여 4주간 매일 일본어만 공부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아침 9시부터 오후1시까지 4시간씩 4주를 공부하면 신라대학에서 2학점을 국제교류학점으로

인정을 해 준다. 한 기수 당 15명에서 2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총 경비의 반을 보조해준다. 식사는 각자가 해결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이용하여 문화탐방도 병행한다.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며 지원율이 매우 높다. 교수간의 공동연구도 실시되고 있으며 교수간의 파견도 이루어 지고 있는 양교의 교류가 매우 활발한 대학이다.

(<http://www.nihon-u.ac.jp>)

9) 프루학원대학 (プール学院大学)

2007년 9월 10일 교류협정이 체결되었다. 오사카에 위치한 대학으로 매년 2명씩 교환 유학생을 보내게 되어 있으나 1년이 아니고 6개월씩 교환하기로 되어 있어 학생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프루학원 대학에 한국인 출신 교수가 담당을 하고 있어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프루학원 대학에서 매년 여름방학 때 학생들을 본교에 파견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아울러 본교학생들의 집에 홈스테이를 통해서도 양국 간의 교류를 하고 있다. 전체적인 교류의 내용은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술교류, 학생교류, 공동연구등 으로 되어있다. (<http://www.poole.jp>)

10) 니혼대학(법학부, 日本大学)

2007년 11월 12일 체결되었다. 교환학생은 2명씩을 상호 파견하게 되어 있으나 니혼대학의 사정에 의해 매년 1명씩 파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니혼대학에서의 파견선발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파견대상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어가 중급정도의 실력이 되고 토익점수 및 토플점수의 기본적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거의 없다. 이에 비해서 본교에서의 파견은 일본어가능에 학점이 평점 3.5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다. 니혼대학이 동경의 중심에 있고 오랜 역사와 법학부, 국제학부등의 과목에 호감을 갖는 학생들이 예상외로 많아 매년 경쟁률이 높다.

니혼대학(법학부에서는 매년 2월에 일주일 정도 본교를 방문하여 문화탐방 및 학생들의 가정에 홈스테이를 하고 돌아간다. 이러한 홈스테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까워지고 결국은 가족 간의 교류로 이어지게 되어 실질적인 교류가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국제교류의 경험으로 비추어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는 신뢰감이며 많은 왕래를 통하여 서로 가까워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교류를 통해 터득하고 있다. 어느 나라이건 안 좋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좋은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교류에 임하지 않으면 국제적 교류는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고 만다. (<http://www.nihon-u.ac.jp>)

11) 웨리스여학원대학(フェリス女学院大学)

요코하마에 위치한 기독교 관계로 설립된 명문 여자대학이다. 2008년 3월 20일 교류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연간 교환학생은 한명씩 파견하고 있다. 양교의 교환 학생의 조건은 다른 대학과 거의 같으며 본교에서 파견되는 학생에게는 웨리스여학원 대학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숙사의 준비도 웨리스여학원 대학 내에 있는 기숙사로서 웨리스여학원 대학에서 준비한다. 본교에서의 파견이 여학생으로 한정된 것이 좀 아쉬우나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대학의 하나이다. 물론 지원율도 매우 높다.(<http://www.ferris.ac.jp>)

12) 나가사키 대학(長崎大学)

가장 최근에 교류가 시작 된 대학이다. 큐슈에 있는 대학이라 부산에서 가기도 가깝고 교류하기도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 6월 17일 교류체결이 되었고 학생의 교류는 단기교류를 시작으로 실행되고 있다. 국립대학이지만 법 인화에 따른 예산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정식학생의 장기간 교류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름방학의 단기간 학생교류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 교류는 일본의 나가사키 대학(長崎大学), 한국의 신라대학, 그리고 중국의 동북사범대학의 학생들이 약 1개교 20여명씩 참가하여 3국을 돌며 매년 학생세미나 및 문화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2008년에 나가사키 대학(長崎大学)에서 실시되었을 때는 본교에서 필자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참가하였다. 학교 숙사에 머무르면서 학생들만 참가하는 세미나, 일본의 문화체험, 홈스테이 체험, 역사탐방 등을 통하여 3국의 학생들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 간의 대화는 영어를 비롯하여 일본어가 주가 되고 있으며 완벽한 대화는 이루어 지지 못하더라도 서로의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때문에 학생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중국의 동북사범대학도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고 있고 동북사범대학과 나가사키 대학(長崎大学)과도 교류협정이 체결되어있다.

(<http://www.nagasaki-u.ac.jp>)

이상이 본교의 일본대학간의 교류협정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의 대학 중에는 일본과의 교류협정을 몇 십군데 씩 맺고 있는 대학들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류는 하지 않고 형식적인 면만 강조하는 대학들이 많다. 그러나 본교는 일본의 교류대학들과 최선을 다해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과의 교류는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결국 입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일본과의 교류가 가장 활성화 된 곳은 신라대학이라

는 소문은 결코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후학들을 가르치는 우리들의 의무인 것이다.

3.신라대학교 대학정보 국제교류 국제교류프로그램

신라대학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일본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프로그램이다.

1) 파견 프로그램

우리대학과 협약을 맺고 있는 해외 자매대학에서 학업을 이수하며 학점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대학은 매년 해외자매대학으로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상대교와의 상호호혜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므로, 최종선발의 권한은 파견 상대교에 있다.

(1)교환학생 선발자 자격

- 매년 5월과 10월에 해외 자매대학에서 수학할 교환학생 선발
- 자격은 전(全)학년 평점 3.5 이상(3.0 이상일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지원가능)이며 파견국가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절한 어학적 능력을 갖춰야 함
- 파견확정의 최종 권한은 상대교에 있음

(2)선발절차

학업성적을 20퍼센트, 필기시험을 30퍼센트, 그리고 면접시험을 50퍼센트로 하여 선발한다. 필기시험은 파견 상대국의 언어를 중심으로 한다.

(3)학점인정조건

- 파견기간 중 본교에 등록금 납부
- 파견학기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음
- 파견 전에 '수학계획서'를 작성하고 파견기간이 끝나면, 자매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후 전공학과를 경유하여 학적팀에 제출(성적은 평점 및 학점으로 인정)
- 자매대학에서 이수 가능한 학점은 매학기 최대 19학점까지 인정 가능

2) 수용 프로그램

우리대학과 협약을 맺고 있는 해외 자매대학에서 학생들을 우리대학으로 파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중국, 일본, 독일, 미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에서 40여명의 학생들이 우리대학을 방문하여 학점을 취득한 후 본국으로 귀국 한다.

(1) 캠퍼스 내 언어·문화 교류 프로그램

- 우리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의 교환학생들과 개인 튜터링(Tutoring)제도, 외국인 유학생 체육대회,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교류 경험을 통하여 상대국가의 언어 및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Korea Study Program 을 활용하여 신라대학생들도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같은 과정의 수업을 등록하여 활발한 토론 및 공동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외국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English Cafe

- 우리대학 재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연관, 경상관, 화랑관에 영어카페 개설-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학생(Native Speaker)들이 상주하며 Free Talking 및 다양한 Activity 활용가능

3) 단기 파견프로그램

세계화, 국제화 대학을 지향하는 신라대학교의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은 빠르게 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열린 사고와 책임 있는 21세기 국제화 주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04학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학점인정 및 연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파견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기 중 프로그램과 동·하계방학 프로그램으로 구분 된다.

- (1) 방학 중 파견 : 동계 및 하계방학을 이용한 단기 프로그램으로 연수 후 학점인정 (자유강좌 “단기해외연수”과목 2학점, P/NP)
- (2) 학기 중 파견 : 1,2학기를 이용한 장기 프로그램으로 연수 후 학점인정 (제1전공 또는 자유선택 18학점, P/NP)
 - ※ 전공학점 : 전공심화외국어 I, II, III 각3학점(9학점), 학과별 대체 3과목 각3학점(9학점) → 총 18학점
 - ※ 자유선택학점 : 해외언어연수 I~VI(각 3학점) → 총 18학점

(3) 방학 중 및 학기 중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비교

과건은 방학 중 과 학기 중으로 나누어진다. 학생 교환 에 있어서는 우리대학에서 일방적으로 파견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의 교류대학으로부터도 같은 조건으로 교환학생을 받을 예정이다. 학비는 연수기관에 본교(연수 해당학기 등록)가 학생들에게 징수하여 지불하고 있다. 또한 연수 기간은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16주까지가 있다. 수강 과목은 상대국의 어학 및 언어를 중심으로 한다. 케이센여학원대학에 있어서는 정규과목을 포함 한다.학점 인정은 자유강좌 2학점에서 전공 혹은 자유선택 18학점까지 인정한다. 학교지원은 총 연수비용의 30퍼센트에서60% 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학년 2학기 부터 4학년 1학기 재학생에 한하며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가) 지원 및 선발 안내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연수 모집은 파견학기의 2개월전에 실시한다.

나) 지원자격

접수 마감일 기준 전 학년 평균평점 2.5이상인 학부 재학생

(단, 평점 2.5미만인 학생은 본인 해당학과 진로지도 교수추천서를 받아 대외협력팀으로 방문 제출 후 지원가능)

다) 편입생은 한 학기 이상 등록 및 성적 취득한 학생

라) 접수마감일 기준 휴학생은 학기 중 연수만 지원가능

(단, 선발 후 파견해당학기에 반드시 복학 및 등록해야함)

마) 대학원생은 모든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자비로 참가 가능

(단, 연수비용 지원 없음,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면제)

※ 학기 중 일본 해천여학원대학연수 지원자격 : JLPT 2급 이상 소지한 여학생

※ 방학 중 연수 프로그램은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학기 중 연수 프로그램은 재학 중 1회만 참가가능

(4) 선발 방법 (학부성적 40% + 면접 60% + 가산점)

가) 학부성적 : 전 학년 평균평점 환산점수 반영

나) 면접 : 어학능력, 인성, 적극성, 성실성 등 고려 환산점수 반영

※ 면접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면접 불참 시 자동 불합격)

다) 가산점 : 아래 해당자에 한함

① 본인 지원 국가 해당 언어의 공인어학성적표 제출 시 점수에 해당하는 가산점 부여

② “신라 영어사관 프로그램” 이수자가 영어권 프로그램 지원 시 수수료증 제출자에 한해 가산점 부여

③ “해외취업 프로그램” 어학강좌 4주이상 이수자가 해당언어 프로그램 지원시 수료증 제출자에 한해 가산점 부여

※ 중복 가산점 부여는 불가하며 적용 가능한 가산점 중 높은 가산점 하나만 적용

※ 가산점 증빙 서류인 공인어학성적표(사본)또는 프로그램 수료증(사본)은 대외협력팀(국제교육관 316호)으로 제출

이상이 신라대학교에서 외국에 파견하는 교환유학생 및 연수의 내용이다.

또한 참고로 일본과의 협정서를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대학교와 시가쿠칸 대학과의 교류협정서

신라대학교와 시가쿠칸대학은 양 대학의 학술, 교육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우의와 상호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류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 교류범위

- 1) 양 대학 간의 교류는 학생교류에 한한다.
- 2) 교류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은 파견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제2조 교류의 조건

- 1)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대학은 협정서의 조건을 실천하기위한 교육 및 제반 시설을 제공하여야한다.
- 2) 유학생을 보내는 대학은 상대 대학의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필요서류(유학신청서, 이력서, 보호자의 동의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 3) 파견유학생 수는 원칙적으로 1년에 2명 이내로 한다.
- 4) 유학기간은 원칙상 1년으로 한다. 다만, 한 대학의 전체 유학생의 수가 2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인이 일 년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 유학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은 차견대학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처리한다.
- 6) 유학생은 수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대국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대학에서 적절한 어학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 7) 유학생의 학비 및 기타 비용의 부담은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 (1) 왕복 여비 및 교재비 · 체류비는 유학생이 부담한다.
 - (2)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대학은 유학생의 학비 등을 면제한다.
 - (3)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대학은 숙박시설을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식비는 유학생이 부담한다. 홈스테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 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료는 유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제3조 협정의 실시, 개정 및 폐지

- 1) 이 협정은 양 대학 대표자의 서명 이후부터 효력을 가진다.
- 2) 이 협정의 개정은 상호협약에 의하여 서면으로만 이루어 질수 있다.
- 3) 이 협정은 당사자의 한쪽이 1년 전에 협정 폐지의사를 서면으로 밝히지 않는 한 유효하다.
- 4) 이 협정은 한국어 · 일본어 · 영어로 작성하고 각각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부기 : 교원 · 연구원의 학술교류를 조기 실현하기 위한 조건 등을 상호 검토하기로 한다.

신라대학교

시가쿠칸대학

총장 _____

총장 _____

이 협정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호협력 의사를 밝혀두는 것이다.

이상이 신라대학교의 일본을 포함한 외국과의 교류의 모든 것을 소개한 내용이다.

4. 신라대학교의 일본어 교육.

신라대학에서는 국제교류 차원에서의 일본대학간의 교류와 더불어 일본어 교육에도 힘을 쓰고 있다. 부산은 다른 지방과 달리 일본과의 교류가 오래전부터

되어온 도시이다. 지리적으로 후쿠오카와 가깝고 매년 60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부산을 찾고 있다. 최근 아쉽게도 부산에서의 일본인 관광객 사고등도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온 부산과 일본의 관계는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다. 부산은 한국정부의 일본대중문화 개방이전부터 자연스럽게 일본문화가 들어와 정착된 곳이 아닌가 한다. 일본 텔레비가 예전부터 시청되었고 일본라디오가 청취되었으며 일본어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쓰이는 등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일본의 문화가 빨리, 그리고 많이 들어온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인 일본에 대한 기반아래 대학에서의 일본과의 교류 및 일본어 교육도 다른 곳과는 좀 차별화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신라대학교는 부산여자대학교가 1997년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서 이름을 바꾼 대학이다. 올해로 5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며 부산에서 사립 여자대학으로 출발한 대학이다. 신라대학교에는 전국에서도 빠르게 일어교육과가 설치되었다. 1974년에 일어교육과가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가장 빠르게 설치된 대학으로 많은 졸업생을 배출, 부산 경남지역에서 일본어 교사로서 후학들의 일본어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1988년 일어일문과가 설치되어 지금은 전국에서 일문과, 일어 교육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되었다. 일어일문과는 한 학년정원이 40명, 일어교육과는 30명이며 일어교육과에는 일어전공교육대학원이 설치되어 석, 박사과정을 두고 있고 일문과 역시 일반대학원에 석, 박사 과정이 설치되어있다.

부산이라는 일본과의 관계가 활발한 지역적인 특성을 업고 있어 취업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일어교육과 출신들의 교원 임용도 다른 어느 대학보다 높은 편이며 일어일문과 출신들의 취직도 여행사, 영사관, 부산지점의 일본기업, 해운회사, 공무원, 여행가이드 등 폭넓은 분야에 취직이 되어 활약하고 있다. 일어일문과의 경우 매년 취직률이 80퍼센트에 육박 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취직을 원하면 거의 취직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나머지는 유학을 간다든지 일본에 워킹으로 진출하여 일본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실정이다.

신라대학에서는 현재 3년 전부터 일본어 교양을 1학년에서 2학년까지 거의 필수로 지정하여 제 2외국어로서 일본어 기초를 한주에 4시간씩 수업하고 있다. 영어를 필수로 하고 제2외국어를 반드시 선택하게 하는데 대부분 90퍼센트 이상 일본어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학점은 2학점인데 시수는 4시간으로 2시간은 한국인 교수가 문법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나머지 문법적 설명이 끝난 후에 회화를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다.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일본인

교수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어의 습득이 빨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처음 2개월 정도는 학생들이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아직 서먹서먹하고 일본어를 경계하는 경향이 있는데 2개월이 지나면서부터 교수들과의 개별적 접촉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수업이 익숙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인 전임교수 8명과 일본인 전임교수 13명, 한국인 시간강사 14명이 일본어 교양을 담당하고 있다. 한 클래스의 학생 수는 최대 25명으로 회화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사와 학생들 간의 진정한 회화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학년 신입생들이 일본인 교수들의 수업에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지만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친해져 개별적으로 많은 시간들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본교의 학생들의 일본어 실력은 다른 곳보다 낫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런 교육 방법 때문은 아니다.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색이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깝고 일본인들이 매년 60만 명이 부산을 찾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일본어능력시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12월 7일에 실시된 능력시험에도 부산지역에서 28500여명이 응시했다. 2학년이 되면 역시 일주일에 네 시간씩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하여 2년 동안 일본어를 하면 일어전공 학생이 아니더라도 2급 정도의 수준에 다다른다. 물론 일어전공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거의 1급 능력시험에 응시 합격하게 된다. 그중에는 1학년, 2학년 때 1급 시험을 패스한 우수한 학생들도 있다. 또한 학교전공 컬리큘럼에 일본어 능력시험 수업을 넣어 직접 담당교수가 지도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과 일본과의 교류 및 방문을 통하여 일본을 알고 일본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5.신라대학교의 일본 현장실습.

앞에서 설명한대로 신라대는 일본의 여러 대학들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다. 학교에서 선발시험을 통하여 파견하고 있고 교환유학생들이 돌아왔을 때의 일본어 실력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과 일본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신라대학교의 정식유학생 파견이 아닌 단기 일본방문은 다음과 같다.

1)매년 2월과 6월

후쿠오카 하카타(博多)좌에서 일 년에 두 번 있는 가부키 공연을 관람한다. A석이 2만 엔이고 D석이 5천 엔인데 D석을 50퍼센트 할인해서 관람한다. 3박 4일로 카멜리아라는 배를 이용하여 배에서 1박하고 현지에서 2박을 한다. 가부키만이 아니라 후쿠오카의 역사적인 곳도 방문을 한다.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체적인 경비는 35만원 정도이다.

2)5월 두 번째 주 일어일문과 현지 견학

일어일문과 3학년 졸업여행으로 매년 50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다. 오사카,교토, 나라, 아스카일원을 펜스타 배를 이용하여 5박 6일로 다녀오는 일정이다. 배에서 2박, 현지에서 3박을 한다. 경비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30만원이면 가능하다.

3)매년 1월과 7월

일본대학 일본어 연수프로그램이 있다. 참가인원은 15명에서 20명 정도이다. 경비의 반을 학교가 부담한다. 4주 동안 이루어지며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씩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공부한다. 전체적인 경비는 200만원 정도이다.

4)매년 8월 자매대학 방문

동경케이센여대 방문을 한다. 민박을 포함한 대학생 세미나를 실시한다. 7박 8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나머지는 호텔에 숙박한다. 참가비용은 100만 원 정도이며 학교에서 경비의 반을 부담한다. 참가인원은 15명 전후이다.

5)대학원 현장견학

여름에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후쿠오카에서 홋카이도 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일본 전역을 견학한다. 카멜리아 배로 후쿠오카로 들어가 레일패스를 이용하여 신칸센으로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견학한다. 전체경비는 100만원 전후이며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야간열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배를 타보기도하고 보통열차를 타 보기도 한다.

6)대학원 세미나

매년 1월 대마도에서 실시한다. 1년간의 연구물 발표 및 논문 중간발표를 2박 3일 일정으로 실시한다. 전체경비는 30만원 전후이며 대학원 실험실습비에서 일부를 보조한다.

7)매년 6월말과 12월말 인턴 파견

매년 2회로 약 20명씩 일본의 리조트호텔로 유급 인턴을 파견하고 있다. 2개월 기간으로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 받고 1일 8시간 근무하여 20만 엔 정도를 받을 수 있다.시급은 650엔 전후이고 값다 온 학생들의 평가는 매우 좋다. 일본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일본어 회화의 습득에 많은 도움이 되고있다.

이상과 같은 단기교류를 통해서도 일본과의 교류를 활성화 하고 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국제교류를 통하여, 또한 현지를 방문하여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국제교류는 필연적이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할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6.신라대학교의 일본어 특강

신라대 일문과는 많은 일본인들을 초청하여 학생들과의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1)군마현과 한글애호회와의 교류

매년 9월 말에 군마현의 한글 애호회 회원들과의 특강 및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군마현 한글애호회는 일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등 정식 그룹 중에 가장 활성화 되고 큰 단체이다. 회원이 약 90여명으로 한국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본교를 방문하여 본교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일본어와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2)도쿄 회계사 초청 일본의 정세 특강

도쿄의 유명한 회계사를 초청하여 일본의 경제, 정치, 그리고 취직 현황 등

살아있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모든 사항을 학생들에게 강의하게 한다. 끝나고 간담회를 통한 질문 등 활발한 대화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한다.

3) 매년 총영사 특강(재 부산 일본국 총영사)

매년 5월경에 재 부산 일본국 총영사를 초청하여 일본과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하여 특강을 하고 학생들과 대화시간을 통하여 일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4) 큐슈대학 교수 특강

큐슈대학의 일본어학 교수를 초청하여 일본의 음운 및 음성학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수업을 듣게 한다. 3학년과 4학년이 중심이 되고 대학원생들도 참가한다.

5) 일본 호텔협회 임원초청 호텔, 관광실무 특강

인턴사원 파견을 위하여 일본의 호텔관계자를 초청하여 일본호텔의 현황과 호텔에서의 매너 등을 교육 받는다.

이러한 특강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들과의 만남도 국제교류의 한 방법이며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7.결

국제교류는 21세기에 있어서 필연적인 조건이 되었다. 아니 어디서나 어느나라에서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필수 조건이 되었다. 글로벌시대에 있어서의 지역적 블록현상은 일본과 한국을 더욱더 가깝게 묶어 놓았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 이라는 지역적, 즉 동아시아의 결속은 이제 시대적 흐름인 것이다. 일본과의 교류는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며 공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 되었다. 대학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국제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신라대학교에서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1991년부터 일본과의 교류를 시작하였고 다른 어느 한국의 대학보다 활발

한 교류를 통하여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다.

학생을 파견하고 학생을 받아들여서 교육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국제적인 마인드와 희생이 없으면 바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없다.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상대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도움을 준다는 자부심을 갖고 국제교류에 임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볼 수 있는 시야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일본어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가르치는 교원의 노력에 따라 학생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가르치는 교사가 개인적으로 좋아지면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또한 현장체험을 통해 일본어에 자신감을 갖게 되며 이러한 자신감과 의욕은 곧바로 학습향상에 연결된다. 이러한 동기부여를 위해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아울러 많은 일본인들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국제교류의 첫 걸음일 것이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학생들은 일본어 실력이 향상될 것이며 교사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양국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활성화되기를 기원한다. 지금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잘 찾아보면 좋은 길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21세기의 새로운 동반자적인 교류를 기대해 본다.

参考文献】

생략